

‘상생금융’ 압박에 보험사, 車 보험료 인하 ‘전전긍긍’

상반기 보험사 순익 63.2% 급증
역대급 실적에 상생 압박 거세져
車보험 손해율 안정세도 힘 실어
업계, 인하 시기·폭 두고 눈치싸움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명목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하면서 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유투이미지

최근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보험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상생금융 명목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하면서 보험사들은 인하 시기와 폭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으로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반기 보험사의 당기 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지난해(3조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업권 중 보험업계 실적이 좋았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이미 연속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바 있다. 2022년 4~5월 손보사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및 사고 감소로 손해율 개선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1.2~1.4% 인하했다.

올해 1월에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2~2.5% 추가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손보사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를 결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가 화답하는 형식이었다”라며 “이번에는 상생금융이 화두가 됐다.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이고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으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힘을 실어준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3%로 통상 적정 손해율인 80%를 밑돌았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에게 이달 말까지 인하 계획과 구체적인 인하 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인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인하 폭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이번 달까지 보험사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 차원의 상생금융 압박에 보험사들은 서로 보험료 인하 시기는 물론 인하폭을 놓고 눈치싸움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어느 한 보험사가 내리면 다른 보험사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정 보험사가 선불리 언급하기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5399억원) 대비 63.2% 급증했다.

역대급 실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이익 규모가 급증한 만큼 보험업계에 상생금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 발 안전자산 금 변동성 확대... 건축 여부도 주목

전쟁 국지전 양상에 리스크 완화
7거래일 만에 30% 금 상승분 반납
고금리 기조 장기화도 금 약세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기조 불확실로 금값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당분간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전쟁의 전개와 오는 12월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금 가격이 움직일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온스당 1845.20달러였던 뉴욕선물시장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30일 2005.60달러까지 올랐지만, 지난 10일에는 온스당 1937.7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전쟁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쟁 이전이었던 지난달 6일 금 가격은 온스당 1845.20달러였지만, 지난달 30일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예고에 긴장감이 고조되며 160.40달러(9.5%) 상승한 온스당 2005.60달러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스시스

지 올랐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국지전 양상에 머무르며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금 가격은 지난 8일 온스당 1957.80달러까지 내렸다. 7거래일 만에 29.8%(47.8달러)의 상승분을 반납했다.

또한 지난 2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 결과도 금 가격에 변동성을 더했다. FOMC 정례회의 결과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중단할 것인 시장의 예측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금 가격은 정례회의 이후 지난 3일까지 0.30% 상승했다.

금리인하를 예측하는 시장의 기대와 다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낸 파과적

(금리 상승·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책 방향성) 메시지도 금 가격에 영향을 줬다.

지난 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 토크에 패널로 참여한 파월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한 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고,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파과적 메시지를 냈다.

앞서 FOMC 정례회의에서 밝힌 “인플레이션을 낮출 만큼 제한적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비둘기파적

(금리 하락·유동성 증가를 통해 시장 통화량 증가를 꾀하는 정책 방향성) 메시지와 대비되는 발언이다.

파월 의장의 ‘깜짝’ 파과적 메시지에 지난 10일(현지시간)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2.10달러(1.63%) 내린 온스당 1937.70달러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가 기존의 시장 예측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 연준의 금리 전망도 불확실한 만큼 금 가격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예측한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8.6%, 인상할 가능성은 18.9%다. 반면, 같은 기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도 12.4%에 달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 가격이 금리 변동 기대감에 단기간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자산 업계최초 40조 돌파

KB국민은행은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 4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로 자산관리 적립금 3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등 2018년부터 5년 연속 적립금 자산 증가량 1위를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이달 3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1의 6개월 수익률은 5.34%로 전체 29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1위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40조원 돌파는 적극적인 고객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상품 제공 등 연금 사업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업계 최초로 개인고객에게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와 연금자산관리부터 은퇴·노후 전반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부채연계분석(LDI) 기반 적립금운용계획서 컨설팅’ 및 ‘맞춤형 자산배분솔루션(OCIO)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게 차별화된 연금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은행, 외부영업 ‘누비’ 리뉴얼

상담 현장 고객 맞춤형 설계 지원
1인 점포 수준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BNK부산은행은 태블릿PC를 통해 영업점 외부에서도 금융상담과 은행업무가 가능한 외부영업(ODS) 시스템 ‘누비(NEW-B)’를 리뉴얼했다고 13일 밝혔다.

누비(NEW-B)는 영업점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1대1 전문 상담과 함께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 디지털금융 시스템이다.

부산은행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상담 현장에서 강화된 고객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가계·기업 대출 상담 ▲금융 상품 가입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또한, 상담과 동시에 상품가입 등 업무를 즉시 완료하지 않더라도 향후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과 연동해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누비(NEW-B) 리뉴얼을 시작으로 각 개별 고객의 금융 정보를 수집·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 점포 수준의 초개인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한 부산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이번 누비(NEW-B) 리뉴얼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편리성과 금융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디지털 변화에 발맞춰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DL이앤씨, AI 건축설계 자동화 사업 참여

국토부 추진 5개년 프로젝트
지능형 자동화 기술 개발 총력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건축설계 전반에 자동화 및 지능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5개년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5개 기관이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해 왔다. DL이앤씨는 올해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건축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계획 및 설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설계 환경 구축 ▲지능형 건축설계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수립 ▲지능형 설계 적법성 평가 및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 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능형 설계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설계안을 작성하고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실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AI 연구 과제들에 대한 실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